

어린이책 출판사 계수나무 | 북한 창작동화 첫 정식계약 출간

북한 창작동화가 처음으로 정식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출판되었다. 어린이책 출판사 계수나무는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와 출판계약을 맺고 북한동화 선집 '북쪽에서도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있었네' (전 3권)의 1권 《외딴독이》, 2권 《봉봉이의 꽃잎 수첩》, 3권 《대장이 된 알락오리》를 발간한다. 북한 동화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1년 사계절 출판사가 펴낸 '남북 어린이가 함께 읽는 전래동화' (전 10권) '남북 어린이가 함께 보는 창작동화' (전 5권). 그 뒤 산하 출판사의 '북한의 어린이' (전 5권), 보리 출판사의 '겨레아동문학선집', 우리 교육 출판사의 '뽀옹이네 꽃밭', 신구미디어의 '통일을 준비하는 어린이' 시리즈 등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1월 2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 가입신청서를 제출, 저작권 관리에 나섰다.

영진닷컴 수출 도서 | 아마존 판매 상위권에 올라

영진닷컴이 최근 미국으로 수출한 《마야 캐릭터 애니메이션 2》가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호평을 받으며 '그래픽 &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도서에서 20위권, 아마존 전체 순위에서 2천위권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세계적인 컴퓨터 관련 서적 출판·배급사인 미국 사이벡스(Sybex, Inc)와 계약, 이 책의 영문판 1만 2천 부를 제작, 수출한 것으로 영진닷컴은 앞으로 IT 도서 중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그래픽 분야 도서를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t_(02)1588-078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학이야기' 개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기영)은 5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평론가 김주연 씨의 진행으로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를 개최한다. 박완서, 김주영, 마중기, 김인숙 씨 등 소설가와 시인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온다. t_(02)760-4562

한국출판연구소 | 출판 포럼 개최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한국전자출판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20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출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출판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한국출판산업 전망' (이기성 전자출판연구회 회장), '한국 고전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현황과 과제' (이창경 신구대 교수), '디지털 환경에서의 POD 출판의 효과와 영향' (오현주 한신대 강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t_(02)739-9040



한국도서관협회 |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는 최근 목포에 사는 박수현 씨 가족을 '책읽는 가족'에 선정,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해당 공공도서관장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협회는 문화관광부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후원으로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 책읽는 가족이 됩시다' 사업을 지난 2002년 9월 독서의 달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벌여왔다. 이는 가족단위의 독서생활을 통하여 책읽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독서기반 시설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 t_(02)535-4868, e_klanet@hitel.net

한국잡지협회 | 잡지교육원 개원

(사)한국잡지협회(회장 이십)는 3월 21일 여의도 한국잡지정보관에서 '한국잡지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한국잡지교육원은 우수 잡지인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정책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스튜디오와 전자과학 장비 등 최신 교육설비를 갖추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취재기자 과정, 편집 디자이너 과정, 광고영업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며, 올해 우선 취재기자 과정, 편집 디자인 과정을 운영한다. t_(02)735-9466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상 공모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한국문학번역상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상은 지난 5년간 단행본으로 번역·출판된 도서들 중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에 크게 기여한 번역작품과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에 공로가 큰 출판사 및 출판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 연도 기준 5년 이내에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당 언어권 현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한국의 현대 및 고전 문학작품(집)을 대상으로 하며, 번역대상 1편에 미화 2만 달러, 번역상 3편에 각 미

화 1만 달러, 특별상 1건에 미화 1만 달러가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발표는 10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t_(02)732-1442, e_webmaster@itikorea.net

한국출판인회의 | 홍지웅 신임 회장 선출

(사)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월 27일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제3대 회장에 홍지웅 씨(열린책들 대표)를 선출했다. 홍 회장은 1986년 열린책들을 설립하여 외국 문학작품의 번역출판에 주력했으며,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가장 문학적인 출판인상, 올해의 출판인상 등을 수상했다. t_(02)3444-0623, e_kopus@chollian.net

대산문화재단 | 청소년문학상 공모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제11회 대산청소년문학상을 공모한다. 시는 3~5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60장 내외의 분량을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백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대학 입학시 2년간 등록금이 지원되고, 각 대학에 문예특기자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마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다. h_www.daesan.org

바로북닷컴 | 제2회 인터넷문학상 대상작 발표

전자책 전문 출판회사인 바로북닷컴은 지난 3월 5일 제2회 인터넷 문학상 대상에 소설부문 최진욱 씨의 '다미의 세계'와 시부문 김성수 씨의 '아프리카를 꿈꾸다'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인터넷문학상 작품들은 바로북닷컴 홈페이지(www.barobook.com)와 한국인터넷 문학상 홈페이지(www.ijakg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훈 축구선수 | 1골당 도서40권씩 기증

최근 충청북도 제천시 '어린이도서관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철수)는 축구선수 김도훈 씨가 올 K리그에서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교보문고가 도서 40권을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도훈 선수가 자신의 연고가 있는 충북 제천시에 올 시즌 골을 넣을 때마다 40권씩의 책을 기증하겠다고 한 선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도훈 선수의 골수에 따라 기증될 도서의 양이 걸려 있어 스포츠계와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서 이달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폭풍의 한가운데 | 윈스턴 S. 처칠 저·조원영 역, 아침이슬 ●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 정창권 저, 사계절 ● 한국철학에세이 | 김교빈 저, 동녘 ●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영명 저, 오름 ●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 데이비드 아커 저·이상민 외 역, 비즈니스북스 ● 미디어 바이러스 | 더글러스 러시코프 저·방재희 역, 황금가지 ● NASA. 우주개발의 비밀 | 토머스 D. 존스 외 저·채연석 역, 아라크네 ● 오주석의 한국의 아름다움 | 오주석 저, 숲 ● 왜사나면... 웃지요 | 김열규 저, 궁리 ● 붓으로 조선 산천을 품은 정선 | 조정육 저, 아이세움

문인들 별세

● 소설가 이문구 씨 별세 | 소설가 이문구 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196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문학작가상, 만해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부는 고인에게 은관 문화훈장을 추서했다.

● 시인 조병화 씨 별세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역임한 원로시인 조병화 씨가 3월 8일 경희의료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경기 안성 출신인 조병화 씨는 1949년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으로 등단한 뒤 창작시집, 시선집, 시론집 등 160여 권의 책을 냈으며, 아시아문학상, 서울시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 3·1문화상, 금관문화훈장, 5·16민족상 등을 수상했다.

● 수필가 박연구 씨 별세 | 수필가 박연구 씨가 지난 3월 7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34년 전남 담양 출생인 박연구 씨는 1963년 월간 <신세계> 수필부문에 당선, 등단한 뒤 월간 <수필문학> 주간, 한국문인협회 이사, 계간 <한국수필> 편집인, 도서출판 범우사 편집위원 등을 거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했다.